

고려해운 ...

육·해상 합동 비상훈련

고려해운(대표 최영후)은 6월 30일 'KMTC ULSAN' 호를 대상으로 육·해상 합동 비상훈련을 시행했다.

이날 11시부터 본선과 본사 및 부산, 울산에서 동시에 실시된 이번 훈련은 해사부와 안전관리 T/F(태스크 포스)팀이 주관했으며 안전관리자(DP)인 박기진 전무가 총괄 지휘했다.

훈련 내용은 화재/헬리콥터 운용의 복합비상훈련으로 선박에서는 화재가 난 상황을 가정했다. 본사에서는 비상대책 회의가 소집되어 본사 전 임원, 관련 부서장/팀장 및 해당 업무 실무자가 참석했으며 부산과 울산 등 지방사무소는 유선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실제 본선의 위급상황에 대비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육·해상 합동 비상훈련은 ISO/ISM CODE에 따라 매년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대안해운 ...

올들어 케이프 3척 신조발주

대한해운(사장 이진방)이 올들어 케이프사이즈 3척을 신조 발주한 데 이어 중고 케이프 벌크선 2척을 도입하는 등 선대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해운은 지난 4월 한국전력의 발전용 유연탄 장기수송을 위해 17만8,000 DWT급 광탄선의 신조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달 초에도 같은 급 벌크선 1척을 신조 발주했다.

또 6일 17만6,000 DWT급 벌크선 1척을 도입키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올들어서만 3척의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신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선박은 오는 2006년 차례로 인도될 예정이다.

이밖에 대한해운은 올들어 2척의 중고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을 도입해 운항하고 있다.

또 지난달 2만8,000 DWT급 핸디사이즈 벌크선 1척을 신조 인도받은 데 이어 18일 4만8,600DWT급 핸디막스사이즈급 벌크선 1척을 새로 인수했다.

세양선박 ...

세모유람선 인수 본계약 체결

세양선박(회장 임병식)이 세모유람선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세양선박은 지난 1월 인수합병(M&A)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후 정밀실사, 채무조정 등 일련의 인수작업을 벌여 세모유람선에 총 18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총 투자금액은 180억원 중 컨소시엄 참여사별 투자금액은 ▲세양선박이 80억원 ▲모회사인 세브마운틴해운이 25억원 ▲산은캐피탈이 75억원 등이다.

세양선박은 이번 본계약 체결에 이어 곧 바로



경영인수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유상증자 및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말까지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모유람선은 한강유람선 사업과 관련 식음료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여의도를 비롯한 5곳의 선착장과 20여척의 유람선 및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세모유람선은 모기업인 세모에 대여한 대여금이 세모의 부도로 회수불가해짐에 따라 재무구조가 동반 부실해졌지만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안정적인 수익원을 가지고 있다고 세양선박은 설명했다.

세양선박 관계자는 “그동안 세모유람선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시설투자 및 마케팅이 부족했지만 인수 후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해 차별화된 마케팅과 다양한 이벤트로 잠재고객을 유치,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 ●●●

‘직원만족 경영’ 화제

현대상선 노정익 사장이 직원들의 기를 살리기 위한 독특한 ‘직원만족경영’을 펼쳐 화제다.

노 사장은 지난 6월 21일 저녁 임원 10여명과 함께 회사 불링회 동아리 ‘포세이돈’ 모임에 참석, 회원 40여명과 어울려 불링을 친 후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잔을 기울이며 늦도록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사장은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영업실적이 호전되고, 대외신인도가 회복되는 등 이제 회사는 완전히 정상화됐다”면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조만간 최고의 해운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도 당연히 최고의 대우

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직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노 사장은 앞으로도 축구, 농구, 인라인 스케이트, 산악회 등 사내의 10여개 동아리를 순회하면서 이와 같은 ‘호프데이’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 사장의 이같은 직원 기살리기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2년 9월 당시 사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회사가 유동성 위기의 어려움과 구조조정을 겪는 상황하에서도, 매주 수요일을 ‘호프데이’로 정해 회사 지하 호프집에서 전 직원들과 번갈아 맥주를 마시면서 회사사정을 직접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장을 무려 3개월여 동안 가져 신선한 화제를 뿌렸다.

노 사장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역시 새로운 방식의 ‘호프데이’ 행사를 마련했다. 매주 토요일 부서별로 갖는 단합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한 뒤, 식당이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격의없이 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현대상선은 ‘호프데이’ 행사와 함께 노 사장의 지시로 직원들의 해외 승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해운회사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직접 타 볼 기회가 적은 사무직원들 중 올해 대리로 승진한 50여명을 대상으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자사의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등에 승선하도록 했다.

일주일간의 승선 프로그램 중 3박4일은 승선 후 화물의 수송과정 및 관리방법, 항만에서의 양하역 모습 등을 직접 보고 체험토록 하고, 2박3일간은 기항국가를 자율적으로 여행하면서 현지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교육담당자의 설명이다. 이 교육은 전직원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노 사장 자신도 지난해 8월 술선수범해 컨테이너선에 승선, 선상생활을 체험하고 해상직원들과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때의 승선경험이 해운회사 CEO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했고, 또한 직원들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해외 승선교육' 실시를 지시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노 사장은 재즈댄스, 요가 등 자기개발을 위해 외부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여직원들에게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경영진과 직원간의 전담 대화채널인 주니어보드 및 직원 모임인 수평선화화도 수시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등 직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취임 당시부터 회사의 경영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들에게 직접 이메일 편지를 보내 설명하고 형식에 구애없이 아이디어와 협조를 구하는 것도 '직원만족경영' 실천을 위해 노 사장이 강조하는 경영 노하우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어려웠던 지난 몇 년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직원들의 기를 살리기 위한 '직원만족 경영'을 활발히 펼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의욕을 고취하고 애사심을 복돋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노 사장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전해운 ●●●

협력업체 초청간담회

한진해운(대표 : 최원표/www.hanjin.com)은 지난 6월 29일 국내 62개 협력업체의 대표 및 실무 책임자 67명을 초청하여 환경안전보건시스템 및

ISPS CODE(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정)를 교육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소그룹별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모임은 한진해운 부산 해사본부에서 주관 협력회사와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안전보건 시스템 업무 협의를 위해 협력업체를 초청 부산 한진해운 빌딩에서 열렸다.

동 교육은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ISPS CODE 소개, 환경안전보건 교육 및 대응,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인명/작업안전 시스템 소개, 수리/보급/지원의 소그룹별 간담회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안전의식을 재다짐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상호간의 호응과 협조체계를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진해운은 이미 수년 전부터 환경/안전/보건/품질 통합 경영시스템(SHEQ SYSTEM)을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를 자사 통합경영시스템 영역에 두고, 고객 요청사항에 부합하고 국제적 표준화와 규제강화 추세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알지 못하던 각 업체의 동향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향후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 평하고, 모임을 주선한 한진해운에 대한 감사 및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여 협력업체가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 교류와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부산 해사본부 환경안전팀 김명식 상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 정보교류 등을 통해 관련업체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 협력업체 역시 후진적 안전사고의 근절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의식제고를 당부하였다.

참고로 한진해운은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ISPS코드) 발효에 대비해, 선박과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보안 인증절차를 완료하여 완벽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진설명) 환경안전보안 시스템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한진해운 부산 해사본부 환경안전팀 김명식 상무

응아애운 . . .

하반기 승진 인사발령

홍아해운(회장 이윤재)은 7월 1일부로 홍성은 부장대우를 부장으로 승진발령하는 등 하반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승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장 : 홍성은(전산팀) ▲부장대우 : 김광문(총무팀), 권광석(영업팀), 김성곤(울산사무소), 엄상훈(수출영업팀) ▲차장 : 서효진(컨테이너관리팀), 하만석(수출영업팀), 여병종(영업팀), 오홍(싱가포르사무소), 김정현(공무팀)

▲과장 : 이종영(수입영업팀), 이창훈(운항팀), 이용대(전산팀), 박진수(보험팀), 윤철근(영업팀), 김익준(기획팀), 이동일(탱커팀), 조성민(업무심사팀), 전주호(탱커팀), 박경식(전산팀) ▲과장대우 : 차명주(해외마케팅팀), 구상욱(수출영업팀), 조은

범(회계팀), 황세원(영업팀), 장계용(자카르타사무소), 윤동식(단동사무소), 최진섭(공무팀), 김영민(해사팀), 이진철 (해외마케팅팀)

▲대리 : 김효영(업무심사팀), 채희준(상해사무소), 박종석(천진사무소), 이동기(업무팀), 김철(영업팀), 김현진(전산팀)

애운조합 . . .

창립 제42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은 오늘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4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성수 이사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금년에는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동시에 대통령단체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이번 기회를 조합의 제2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직원 스스로가 미래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신바람나고 활기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은 창립 제42주년을 기념해 내항해운 관련분야 발전에 공헌한 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내항해운 관련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창립 제42주년 유공자를 선정·포상했다.

포상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23명과 조합 장기근속직원 24명에 대하여 회장 감사패 및 이사장 공로패를 수여하고 장기근속선원 81명에 대해 회장 감사장을 본·지부별로 시상했다.